

황폐한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할 제자

-복음으로 여는 디도서-

창세기12:1-3, 디도서1:10-16

정운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삶에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이쁨도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주소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사명, 소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하며, 우리에게 주신 목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를 중심으로 황폐한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할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이 디도서는 사도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다. 특히 이 그레데 섬 자음의 지도로 보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나와 있다. 그레데 섬 사람들은 문제가 많았다. 그 이유는 영적인 배경에 있다. 크레타 섬은 ‘유립 최초의 문명발상지이다’ 라고 한다. 인류 최초 문명의발상지는 그리스도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고향이라고 한다. 아페가 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우상문화이다. 사진으로 보면 참으로 아름답다. 크기는 제주도의 4.5배정도 되는 크기이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영적상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이다. 오래 전에 사도바울은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고 제자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레데 섬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생각하기를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디도를 파송하게 된 것이다. 사도바울이 처음 간 곳이 구브로라는 섬이었다. 지금의 키프로스 섬인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간다. 이 섬은 비서스라는 여신의 고향이다. 이처럼 이 섬이 영적으로 문제가 많다. 제일 먼저 간 곳이 가장 영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현장으로 도전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후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영적인 성장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레데 섬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디도를 영적으로 어두운 현장의 목회자로 파송한 이유는 디도만이 그 어려운 목회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였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모두가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어려운 현장에 여러분을 파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목사님이 ‘어려운 부사야. 장로님이 가서 살리세요.’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될 줄을 믿는다. 류목사님이 가끔 예화를 드시는데 어떤 한 분이 책을 파는 사람이라고 한다. 회장님 남동생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제 형님이 회장님이에요.’ 할 텐데 몇 년이 지나도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날 안보여서 ‘그분이 다 가셨어요?’ 하니까 그 분이 장사가 안 되는 곳에 가면 다 살린다고 한다. 그런데 그 분은 대화하면서 한번도 책하는 이야기 안했었다고 한다. 류목사님이 전집으로 낸 것을 몇 백부를 팔았다고 한다. 여러분이 회사, 학교, 교회에서는 정말 안 되고 어려운 현장에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

1. 그레데 섬 지역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개인마다 성격이 있을 것이다. 어떤 분은 까다롭고 어떤 분은 성질이 급하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국민성도 다 다르다. 우리나라는 네 글자로 뽀뽀뽀이다. 필리핀을 가보면 별로 화를 안 낸다 그래서 ‘그분들은 참 착하고 화를 안 내시네요.’ 하니까 선교사님이 그 분들은 화나면 뽀 뽀뽀뽀라고 한다. 일본분들은 알 수가 없다. 까도 까도 껌뽀기이다. 까도 까도 모르겠다. 지난번에 전도캠프를 갔는데 어떤 캠프팀장 이야기를 했다. 자기가 전도캠프를 가기 전에 가있는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켜 줬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담임 교수님이 부르셔서서 ‘너 형의가 들어왔다. 전도하고 다니지 마라.’ 했다는 것이다. 다 웃으면서 복음을 다 듣고서는 교수님한테 이야기한 것이다. 또 축재해서 전도하자고 해서 팀을 짜서 30명이 들어갔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와 같은 경우는 33 캠프를 데리고 교무과로 갔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대학을 들어가려 하는데 이 대학을 생각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인인데 여기 오면 성경공부를 해야 하는데 동아리가 없네. 물어보니까 다 찾아보더니 이 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 것 같다고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모든 자료를 다 주더라. 그런데 그 다음 날 대학에 들어갔더니 입구에서 우리 전도캠프팀 얼굴 사진을 다 찍어서 대조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공산당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졌다. 축재기간이었는데도 그랬다. 전도도 그렇고 사람, 나라도 그렇고 특성이 다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제주도에도 가면 같은 한국인데도 문화가 전혀 다르다. 나이가 80세 되신 어머니, 할머니가 바로 옆 문간방에 사신다. 그런데 아들 가족들이 다 모여서 불고기 파티를 하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까지 초청 안하면 안 오신다. 밥도 다 혼자 해 드신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제주도 문화를 일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 한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저 불효자식 하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제주도에는 여성분들이 독립심이 강하다. 결혼 문화도 다르다. 그리고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도 싸우는 분이 없다고 한다. 왜 그런가 했더니 가운데 한두 명 끼면 다 친인척이라고 한다. 싸우고 나서 보면 다 친인척이라고 한다. 그리고 육자시합이라고 이야기한다. 특히 영적으로 보면 가장 10~20호만 있어도 다 교회가 있는데, 제주도에 50~100호가 있어도 교회가 없다. 굉장히 전도가 안되는 지역이다. 지난번에 제주도 전도캠프 갔는데 서원교회에 이분 주에 구용호 목사님이 쇼윳드라는 몇 십억 되는 커다란 곳이 중국사람들이 오질 않아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싸게 1/3가격으로 교회를 샀다. 땅이 1500평이다. 이 분이 제주도에서 모든 훈련을 오시더라. 비행기 타고 오시려면 자고 가야하고 하니 돈이 두 세배 드는 것이다. 그런데 빠지지 않고 항상 오셨다. 그렇게 전도 안 되는 그 현장에서 큰 응답을 받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감사했다. 우리가 전도캠프

에서 다 보지 않았는가. 그 지역마다 문화가 있다. 그레데 지역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전도가 안 되는 문화였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의 성격도 좋지 않았다. 유대인들도 심했다. 몇 종류의 부류가 있다.

(1) 단:1:10에서 보니까 할례피와 같이 율법을 강조하는 아주 고분분한 유대인 중에서도 할례파, 그 중에서도 그레데 사람. 우상문화, 율법문화에 찌든 사람이 교회에 온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이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많이 많다.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말인데 진체를 보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최선으로 선택할 수 없지 않겠는가. 맞는 말인데 살리는 말이 아닌 것이다. 결국에는 헛된 말인 것이다. 여러분이 거짓말이라도 살리는 말 가치있는 말이 아니다. 기생 라캄이 ‘여기 있어도 다 죽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이 헛된 말이라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하시길 축원드린다. 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불가능하고 헛된 말일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속이는 자,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다. 이런 사람일수록 많은 번지르르 하는데 걸은 회칠한 무덤 속에는 더러운 시체가 있는 것이다. ‘할례를 해치지, 율법을 해치지 구원을 받지 하는데 자기 속에는 온갖 더러운 욕심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니고데모였다. 유대인의 강연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다. 구원의 확신도 없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었을 때 참된 평안이 있고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란다.

(2) 단:11 지금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그레데 섬에 있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훈련 잘 받고 오직 예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대전에 신천지가 엄청 많다. 어떤 사람이 10명의 장로님이 신천지로 넘어갔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2~30명 된 교회에 50명씩 신천지가 들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넘어뜨린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새가족이 오면 목사님들이 한동안 저 사람이 누구인지 걱정한다고 한다. 어떤 작전을 쓰냐면 10년 동안 충성되게 봉사하다가 10년 후 중직자가 되어 그 교회를 신천지로 바꾸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오직 예수 되어서 신천지가 와도 그 분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단:11에 ‘더러운 이득을 취해요.’ 결국에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며 전라나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서론은 맞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그리스도가 오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긴 자가 오는데, 구약을 공부하다보면 다 틀리지만 맞는 것 같다. 성경을 그만큼 모시기 때문에 다 맞는 것 같다. 자녀들에게 ‘나는 아빠, 나는 엄마야’ 하고 병원에 가서 출생신고하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자녀임을 확인하는가? 아니지 않겠는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맞아요?’ 하면 뉘똥수 맞는다. 우리 아들이 ‘아빠 진짜 내 아빠 맞아요? 우리 유전자 검사합시다.’ 그러면 뉘똥수 맞는 것이다.(웃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막 헛들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믿음으로 선물로 주심을 믿는다. 잡자기 너무 일일이 공부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요세 피자가 마지못하고 넘어가는 땅이라고 해서 뽀 백백을 데리고 이단을 유도한다. 마땅치 않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 결국 이단들의 특징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부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인줄 믿으시기 바란다. 창세기 3장에 부부가 사단이 역사해서 가정이 깨졌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줄 믿으시길 바란다. 영적인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건물을 막 짓고 그런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을 주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이다. 교회가 가정, 부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다. 물론 첫째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회복하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 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 여러분이 정확한 신앙의 방향을 갖기를 축원 드린다. 아무리 가정적이고 오직 예수를 말해도 부부관계, 가정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교회는 이상한 것이다. 이단은 아니지만 방향이 틀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면 부부관계, 후대가 살아나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드린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다. 그 황폐한 현장과 개인들이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이 복의근원이 되어서 다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인줄 믿으시기 바란다. 온 천하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계속 일어날 줄을 믿는다.

(3) 단:12에 보면 사도바울은 그레데 섬의 출신 한 철학자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특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한다. 어떻게 보면 그레데 사람과 성도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디도에게 이 현장의 불신자 상태, 신앙생활을 오만한 사람들의 바뀐지 않은 각인 부리 제철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현장에 목회를 하러가는 제자 디도에게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이야기 한 것이다. 살리러 간 것이 지체하려 가는 것이 아니다. 고치고 치유하러 가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여러분도 현장을 잘 아셔야 한다. 아셔야 현장을 바르게 치유할 수 있다.

① 그레데 사람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원에서 부부를 만났는데, 그 부인이 수첩에 기도제목을 한자로 수첩에 썼는데 얼마나 글씨가 예쁘고 말이 청신유수인지. 나중에 보니까 온 기도원을 돌아다니면서 사기 치는 유명한 부부사기단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수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다. 사기 당해서 결혼하지 말고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한다.

② ‘악한 짐승이며’ 어리석은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 아니다. 악한 사람을 잘 봐치지만 치료할 수 있다. 지혜는 천 배 배 되어야 한다. 그래서야 악한 현장을 치유할 수 있다. 한 친구가 있는데 이야기하다보면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뒷골이 당기더라. 한 번 단추를 켜면 인생이 꼬이는 것이다.

③ ‘배반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성경에 보면 게으른 사람이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고, 밖에 나가면 사자, 곰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머리는 가장 똑똑하다. 이는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게으른지 모른다. 그런데 나중에는 정치를 너무나도 잘 하는 것이다. 정말로 일단 시키면 다 뽀뽀를 내는데 정치는 너무 잘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 살려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남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연약해서 못 하는 것, 내가 약해서 거짓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내 모습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이 갱신되고 개혁될 줄을 믿는다. 왜 사람들은 이

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그레데 사람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딤후 1: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만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어떤 분은 자꾸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다. 착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다가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한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다. 마음이 더러우면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가방과 지갑을 두고 그냥 다니는데 그 사람은 남의 것을 잡아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도둑은 자기 것 잘 챙긴다. 도둑들 심보가 있느냐(웃음) 여러분, 자기 물건 잘 챙기기를 바란다. 어떤 분이 경리에게 돈을 다 맡겼는데 거짓말을 해서 1억을 날렸다. 우리 생각에는 회사 직원은 거짓말할 생각을 안 한다. 내 친구가 삼성에 있는데 대우는 왜 안 망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신입사원, 계약, 과장도 다 때어먹는데 결국에는 망하지 않는다.

2. 이렇게 황폐하고 악한 현장의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1) 사도바울은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이 치유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보면 목회자들이 정말 잘못되었다. 딤후 1: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목사들이 얼마나 책망할 것이 많은지 모른다. 갱신해야 한다. 착각이 빠지면 안 된다.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른다. 여러분 기도해주기를 바란다. 고집 부리지 않도록.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얼마나 욕하는지, 노화를 못하겠다. 옛날에 목사님 두 분이 계속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3시간동안 그러시더라. '술을 즐기며' 날마다 술 몰래 먹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구타하지 않으며'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디도에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목회자로써 이것이 먼저 되어야' 세상을 치유하기 전에 영적인 지도자, 목사 장로, 성도들이 제자들이 먼저 치유되어야 한다. 내가 다라방 사역을 하는데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2) 복음적인 장로들을 세워 곳곳에 빛을 비출 때 그레데는 치유될 수 있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딤후 1:12에 보면 사도바울이 디도를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처리하고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사역이 넓어지니까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1:6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이 한 마디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나는 어렸을 때 장로님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각인된 것이 장로님들은 다 부자라는 것이었다.(웃음) 내가 봤던 장로님들은 다 책망할 것이 없었다. 내가 봤던 장로님들은 다 존경스러웠고 다 예수님 같았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렇다. 그런 장로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한다. '한 아내의 남편이며 병명하라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를 둔 자라야 할지라.' 기운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언약이 잘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장로님들은 분명히 훌륭한 장로님들이다.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3)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세밀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다. 늙은이부터 똬근까지 구원되고 복음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삶의 자유, 전도자의 삶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그 때 당시에는 중, 노예가 있었다. 지금의 직장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것이다. 내일부터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늙은 남자들은, 2:2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복음기진, 연세 있으면 이르신들은 덕담하고 칭찬해주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TV를 보는데 '나이가 60이 넘으면 덕담만 하라고' 그러다. '맞다.'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아바님, 잔소리 하지 마세요. 다 싫어하니깐 덕담만 하세요.' 해도 잔소리하시더라. 체질이 잘 안 바뀌는거보다.(웃음) 나이든 신자들은 덕담하고 좋은 말 하고 칭찬해주면 다들 좋아한다.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리고(웃음) '늙은 여자는 포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며.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 그때도 약간 보수적인데도 늙은 할머니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다. 지금도 육성이 술쟁이 할머니들이 떠오른다. 의외로 요즘 여자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 지금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황폐한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젊은 여자들은 여자들은 집안 일을 하며' 요새 여자들은 왜 이렇게 집안일을 안 하려고 하는지. 표를 만들어서 다 집집마다 붙여주고 싶다. 가사의 공동분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남자들은 있는 반찬 꺼내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말 함부로 하면 자녀들이 배운다. 가부장적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존중하게 대하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한다. 또 여자들도 편하다고 말을 막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자녀들이 본다. 아내에게도 결혼생활 시작할 때부터 존댓말을 하는데 신혼부부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시작할 때부터 잘 해야 한다. 무시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의자가 있으면 아버지가 앉아서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아빠가 앉는 자리는 자녀들을 못 앉게 한다. 말씀의 권위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더 소중한 부분이 있다. 지켜줘야 하고 감시해야 하고 포럼해야 한다. 각자의 역할을 잘 하라는 의미이지,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요새는 남자도 집안일을 해야 한다. 서로 도와야 한다. 자기의 책임을 더 잘하라는 것이다. 젊은 남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내 친구들을 보면 가정인데 욕을 그렇게 많이 한다. 너의 집에서 가정인데 욕을 그렇게 많이 하니' 한다. 딤후 10:1에 '종들은 흠치지 말고' 직원들이 거짓말 안 하고 흠치지만 양어도 훌륭한 직원이다.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딤후 3:2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어리석은 변론과 죽보 이야기와 분쟁과 울림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 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4) 엄히 책망도 하라고 전한다.

- ① 딤후 9:3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한다.
- ② 딤후 1:13에 보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한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엄히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빠져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서 그러셨지' 그렇게까지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한다.

③ 딤후 2:15에 보면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업신여감을 받지 말라.' 직장 안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제사장같이 풀이할 때도, 선지자같이 지시할 때, 왕처럼 명령할 때가 있다. 목사님, 직장상사, 선생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2:15에 보면 '누구에 게든지 업신여감을 받지 말라.' 목회자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다.

4. 우리는 왜 그레데와 같은 악한 세상을 치유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 (1) 딤후 2:14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으로 나가서 치유해야 한다.
- (2) 딤후 2:14에 중재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시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보화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지적하고 꾸지람하면 그 사람은 듣겠는가. 아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 다 변하게 될 줄을 믿기를 바란다.
- (3)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 개혁, 갱신해야 한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참사관교회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될 줄을 믿는다. 아제 바자회 하는데 열심히 헌신하시는 것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많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다.
- (4) 딤후 3:5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5) 오직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들의 죄와 행위와 관계없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물결에 하심으로 구원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현장으로 갈 수 있고 그 현장을 치유할 수 있다. 우리를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레데 섬의 사람들과 같이 악한 체질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그의 영혼과 삶의 주인으로 바꾸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 (6) 딤후 3:6 예수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주인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딤후 3:5-7이 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용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물결에 하심으로 하사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 (7)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 상속자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디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들이 붙잡아야 할 CVDPI이다

- (1) 언약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목사님들에게, 선생님, 직장상관에게 황폐한 현장에 파송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으면 그렇게 내가 변할 줄을 믿는다.
- (2) 비전이다. 237개국의 우상문화는 복음의 문화로 치유하는 비전을 마음에 품어야 하겠다. 즉, 우리의 비전은 그레데와 같이 각종 우상과 타락문화로 찌든 가정과 나라를 치유하는 것이다.
- (3) 꿈이다. 우리들의 꿈은 불신사상에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된 행복을 찾아주는 것이다. 가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너무 행복해요. 과거는 너무 공허하고 힘들었어요. 왜 사는지도 몰랐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고백할 때마다 '부럽다. 나도 다시 타락했다가 예수님을 다시 믿어볼까?' 이럴 수도 없다. 그 분들이 모두 중생되기를 축원한다.
- (4) 이미지이다.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도록 기도해야겠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2분이면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그것이 이미지이다. '교화에 나올 때 끌려나오셨구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구나. 어려운데, 힘들어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는 모든 이미지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완전히 새로 위치기를 축원한다.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다.
- (5) 실천이다. 이제 세상과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디도처럼 선배 사도바울이 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이해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살피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창 12:1-3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지 않았는가. 디도도 마찬가지이다. 자기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바울이 저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약을 붙잡고 가서 그 땅을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시켰을 것이다. 여러분도 이러한 응답을 누리라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조차도 치유할 수 없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그레데 섬과 같이 로마처럼 그리스처럼 우상 가득하고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개과 가정과 나라와 국가의 현장으로 저희를 파송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과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행복하게 하옵시며, 이 힘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파송할 수 있는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